

광주신보재단-조선대 경영대학원 협약



광주신보재단(이사장 정석주)과 조선대 경영대학원(원장 전의천)은 최근 지역경제 발전과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술정보 교류 등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광주신보재단 제공>

동강대 '기업 탐방' 현대하이텍 견학



동강대학교(총장 김동욱) 보건행정학부 학생들이 최근 하남산단 내 (주)현대하이텍을 방문해 업체와 생산제품을 소개받는 등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동강대 제공>

광주U대회 조직위 화순 소재 경기장 점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는 지난 25일 화순군을 방문해 시설 사용 등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원활한 협조를 요청하고 화순군 소재 경기장을 점검했다. <광주U대회 조직위 제공>

“몸과 마음이 조화돼야 똑바로 산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고전평론가 고미숙씨

몸을 통해 사회·우주 알면  
새로운 길 찾을 수 있어  
그 길에 '윤리'가 바탕 돼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우리사회는 그 동안 몸을 빼 놓고 나머지를 찾아왔습니다. 성형중독이나 자살도 이 때문이죠. 하지만 몸을 통해 사회와 우주, 자연을 알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53)씨는 25일 오후 광주 시 서구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의에서 지금까지 인간의 몸을 키워드로 고전을 탐구하면서 내린 결론이라며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몸과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부를 이뤄 풍요로워졌지만 그만큼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고 지나친 욕망과 상품화로 맘이 괴롭거나 몸이 아픈 현상이 빈번해졌다”고 진단하고, 그 처방으로 자연의 일부인 인간 그 중에서도 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의 연동과 조화를 무시한 채 그저 증상의 억제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대의학은 병원 자주가는 것 외에 어떤 답도 주지못한다며 한 수위 위라고 할 수 있는 동양의학에서 몸과 마음의 괴리로 빚어지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몸안의 생명을 키우는 '양생'



고미숙씨는 25일 광주일보리더스아카데미 강연에서 현대사회에서 몸을 알고 자연을 이해하면 삶의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배기자 choi@

이 아닌 병을 추적해 박멸하는 '위생'에 치우친 현대의학은 몸 자체를 강하게 할 수 없겠지만 지혜를 기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몸의 안과 밖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삶을 일깨우는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또 “살을 살면서 어려움에 닥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는 곧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우주의 상극의 원리를 담은 몸과 마음을 연마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가야할 방향을 확고히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그 결정에는 몸과 마음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최선의 상태, 즉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아이들에게 윤리를 강조하면서 배려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부모를 불러 급식당번을 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사회가 점차 말이 없어진 사회가 되어 버렸다”며 “사회는 올바른 순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나와야하고 문명을 바꿀 수 있는 말의 향연을 펼칠 수 있는 광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최근 '남송의 달인 호모 큐라스'와 '남송Q 시리즈' 등을 내며 남송으로 고전 읽기에 천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생가는 머리와 입을 일치시키는 연습이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남송은 공부이자 윤리적 수련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끝으로 그는 “지혜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정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잘 돌게 된다”며 “몸과 마음이 원활하게 순환할 때 똑바로 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범시민 인성교육 실천”  
광주인실련 오늘 창립식



인성교육 실천을 이끈 광주시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광주인실련)이 27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광주인실련은 인권의 도시 광주를 인성으로 꽃피우는데 목표를 두고,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해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적 인격·품성을 기르는 광주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시민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광주인실련 상임대표는 박종(사진) 아이퍼스트아동병원 원장이, 공동대표는 강효영·김용인·박남기·백남길·서재의·이연득·윤창·최영준 씨가, 사무총장은 나중상 씨가 맡을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정제평 호남대 교수  
토목학회 우수논문상



호남대학교 정제평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대한토목학회'(KSCSE) 2014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사)대한토목학회가 최근 대구EXCO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정 교수는 'EC2전단이론을 사용한 강섬유 철근콘크리트 전단부재의 한계상태 해석'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해 제40회(2014년)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3000여명의 학자 등이 참석했으며 10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사)대한토목학회는 1951년 설립되어 토목건설분야의 최고의 학회로 현재 2만7천여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학회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양석승 광주대 명예교수  
지적장애인 돕기 콘서트



양석승 광주대 명예교수(한국감성총천선&웃음치료연구소장)는 26일 광주대 호심관 소강당1에서 '제22회 사랑의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양석승 휴먼콘서트'를 지적장애인을 돕기 위한 특별공연 형태로 개최했다.

양 소장은 '2011년 올해의 대한민국 대賞', '2012년 자랑스러운 성공인상', '2012년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 선정에 이어 '2012년 대한민국 문화경영대賞'을 수상했다. 또 '2013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금호고속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금호고속 임직원이 26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야외광장에서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지역 복지단체에 나누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금호고속 사무원과 승무원, 기술사원 및 노동조합원 70여명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으며 총 1000포기의 배추로 김장김치를 담갔다. 김치는 서구쌍촌복지관과 기독교선교회, 돈보스코 나눔의 집 등 금호고속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복지단체에 전달됐으며 무의탁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불우이웃 300여 가정에도 배대됐다.

금호고속 임직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김장철이 되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임동률기자xian@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품질분임조' 대통령상 수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무안·신안지사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상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품질협회가 기업의 품질경영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에는 4개 분야 16개 부문에 전국 298개 분임조가 참가했다.

광주시 품질분임조 대표로 참석한 전남지역본부와 무안·신안지사 전환경 연합분임조는 '농업 토목시설물 시공방법 개선'을 통한 공사일수 단축'이란 주제로 대통령상 상을 수상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09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도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인사

- ◆한국전력
▲홍보실장 박형덕 ▲기획처장 현상권 ▲전력시장처장 김태양 ▲경영개선처장 김응태 ▲인사처장 이호평 ▲자재처장 이회장 ▲영업처장 하희봉 ▲배전계획처장 김동섭 ▲배전운영처장 노일래 ▲상생협력처장 김진기 ▲민원대책처장 도영희 ▲기술기획처장 허용호 ▲ICT기획처장 안양선 ▲계통계획처장 원영진 ▲송변전전설처장 정재원 ▲송변전운영처장 신명식 ▲신송전사업처장 문봉수 ▲해외사업개발처장 임정원 ▲해외사업운영처장 고재한 ▲해외자원사업처장 김경민 ▲해외발전기술처장 박우규 ▲해외원전금융처장 하봉수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석범 ▲경제경영연구원장 김락현 ▲설비진단처장 이강세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마재근(세정아울렛 대표)·최미경씨 장남 준식군 이상남·김숙자씨 장녀 아영양=29일(토) 오후 1시 삼우지구 S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오영배·김복숙씨 아들 규식군 최옥수(광주CBS문화사업국장)·김애란씨 딸 송아양=29일(토) 오전 11시 메종드보네르 1층 보네르홀 062-361-1122.
▲유재록(광주 북구 기업지원과장)·서숙자씨 장남 영웅군 김재영·여옥희씨 장녀 은미양=29일(토) 오전 11시 50분 클리데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종친회

- ▲진주 강씨 광주·전남종회(회장 강원구)영광 사평공시제 참배=29일(토) 오전 9시 30분 종회 앞 출발 062-228-3368.
▲함양 박씨 동정공의 4세 5위 설단 추계시제참배=12월 1일(일) 오전 10시 30분 062-652-4585.

알림

- ▲사랑마루합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아동가족상담센터 무료상담=아동심리적 발달·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미술치료, 언어치료, 자녀 양육상담 062-264-4370, 5308.
▲오지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화순 호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목욕=중풍이나 차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립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모집

- ▲동구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단육성 교육 수강생=하반기 전문봉사단육성교육(중이접기·핸드마사지) 수강생 모집 분야별 15명(선착순) 교육일정 : 12월 둘째 주부터 주1회(목·금), 문의 동구자원봉사센터 062-228-1365.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강좌=양택, 음택, 수택, 명당 무료 강의(책자무료제공) 8월23(토) 오후 1시 30분~5시, 광주대 호심관 7층 (707호) 문의 010-3609-8117.
▲광주·전남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및 보조출연자=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062-674-4008~9.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힘나는 학습클리닉'=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힘나는 학습클리닉'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062-268-1388.
▲살레시안 가족합창단(단장 나금주, 지휘 김철수)=살레시오 초·중·고 졸업자면 누구나 환영(부부 중 한분이라도 동문이면 됨),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삼우중학교(운전지수지 옆) 010-3404-3712(단장).
▲무등 예술종합 평생교육원(국비지원 100%) 수강생=교사를 위한 반주법, 리

다독과 스피치, 뮤지컬 탭댄스(일반부·자격증반), 음악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미술치료 심리상담사 자격증반, 북구 두인2동 무등파크 1차 상가 2층 062-269-6669, 010-3606-0230.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음악(악기)에 재능이 있는 자원봉사자 모집, 최소 6개월, 주 1회 2시간 가능하심. 062-233-0468.

부음

- ▲전막례씨 별세 조성현·영석(조선대 일보어과과 교수)·영희·경희·금희씨 모친상=발인 27일(목)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문영복씨 별세 송희씨 부친상=발인 28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101호 故안광수 남(남/60세)
102호 故김홍배 남(남/89세)
301호 故조금남 남(남/90세)
401호 故김명녀 남(남/87세)